

마이니치신문 과학환경부, 김범성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4

우리 사회에서 이공계의 위기가 처음 지적되었던 것은 3년 전이었다. 그 동안 '과학기술자 명예의 전당'이 생겼고, '이공계 공직자 진출 확대' 정책이 마련되었고, 일부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수능의 교차 지원도 금지되었으며,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수많은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효과는 없었는지 여전히 사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공계 위기의 실체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소위 '이공계 위기'라는 것이 과학기술자들의 이기심에서 제기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대학의 이공계열에 지망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 어느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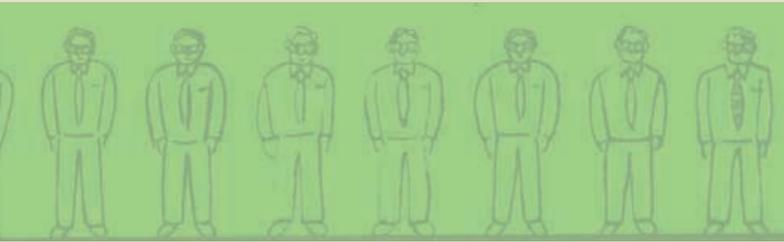
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일 뿐인데, 과학기술자들이 혹시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떡 고물'이라도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공계만 위기가 아니라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심지어 예술 분야도 예외가 아닌데 이공계만 유별나게 불평이 많다는 지적도 들린다. 팬스레 위기설을 너무 과장해서 떠드는 바람에 오히려 위기가 현실화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모양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그런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과학기술계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던 탓이다. 일단 문제를 제기한 후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회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목소리만 있었고, 문제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냉정하고 과학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 교육 정책이 이공계 위기 논란의 핵심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대부분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정작 대학의 정원을 틀어쥐고 있는 교육 당국은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 당국이 대학의 정원을 철저히 관리해왔던 명분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만약 교육 당국의 정책이 옳은 것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인력 수급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선택이 변화하는 세태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면 교육 당국의 대학 정원 관리가 크게 잘못되어서 대학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이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교육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핵심에



서 벗어나 있는 과학기술계가 법석을 떨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뜻이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공계 위기에 대한 논란이 진행 되는 과정은 우리 사회가 스스로 안고 있는 질병의 증상조차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낼 수도 없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꿈꾸기 어렵게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공계 위기'는 단순히 이공계 진학 희망자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교육 정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교육 정책의 위기가 과연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이다.

### 일본의 심층적 자기 진단 노력

마이니치신문의 과학환경부에서 내놓은 『이공계 살리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책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4월 26일까지 장장 1년 4개월에 걸쳐 기획·연재했던 '이공계 백서'를 모은 것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과학기술계도 극심한 이공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첫 증상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공계 진학 희망자의 감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똑같은 증상에 대한 일본 사회의 대응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사회 전체가 이공계의 위기를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간 신문에 이런 심층 기획 기사가 연재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

물론 이 책은 일본의 경우를 분석한 것이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등장 인물의 이름만 바꿔놓으면 곧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사회 전체가 인문계 출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인문계 왕국'이라는 점도 그렇고, '노예'라고 스스로를 폄하할 수밖에 없을 지경에 처해 있는 기술자의 열악한 사정도 마찬가지다.

특히 '과학 교육의 위기'에 대한 분석은 특히 중요하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교육의 실상과 엄청난 대학 입시의 폐해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복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의 본질에 대한 교육은 사라져 버리고, 단순히 "쉽고 재미있다"는 허상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과학 교육이 판을 치고 있다. 과학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들조차 "가르치기 어렵다"는 핑계와 다른 과목과의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는 괴변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대학 입시 탓으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서 한두 과목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현실도 그대로이다.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더 이상 똑같은 수가 없을 정도다. 전문 지식의 틀에 갇혀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윤리나 가치관조차도 무시해 버리는 과학기술자들의 무관심은 우리의 경우에도 정말 그대로이다. 연구비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정말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 휩싸여서 정작 '이공계 위기'와 같은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언론계가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할 책이다. 물론 집단이기주의에 빠져버린 듯이 여겨지고 있는 우리 과학기술계에도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㉔

### 〈과학독서아카데미 추천 도서〉

1. 『명예의 전당에 오른 한국의 과학자들』, 박택규, 이종호 지음, 책바치, 2004
2. 『유전자 시대의 적들』, 존 설스턴, 조지나 페리 지음, 유은실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4
3. 『신과 진화에 관한 101가지 질문』, 존 호트 지음, 신재식 옮김, 지성사, 2004
4. 『빛 이야기』, 벤 보버 지음, 이한음 옮김, 웅진닷컴, 2004
5. 『스티븐 호킹 과학의 일생』, 마이클 화이트, 존 그리빈 지음, 김승욱 옮김, 해냄, 2004